

한평불 2016사업발표

남북관계 개선 골자

한평불이 올 한 해 난국에 처한 남북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불교계 역할을 찾아나선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법음, 이하 한평불)은 2월 15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15 결산 및 2016 사업보고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현재 극단적 갈등상황에 놓인 남북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교계 노력을 구상하는 사업안을 결의했다.

한평불의 2016 주요 사업은 △토론회- '최근 남북관계 급변에 따른 한반도 상황의 진단과 대안의 모색' (3월 21일) △토론회 및 유라시아 문화탐방- '한반도 및 유라시아 문화의 동질성을 찾아서' (8월 경) △한반도 평화 관련 한국 정부 및 미·중에 대한 정책제언(2~3회) 등이다.

한평불 측은 "암울한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의무"라며 "이것이 바로 한평불이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 이유다. 많은 불자들이 한평불 활동에 조연과 참여를 아끼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개성공단 폐쇄에 불교계 대북사업 '올스톱'

민추본·평불협 등 남북불교교류 '난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불교계의 대북 및 남북교류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월 1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포고했다. 개성공단 가동은 남북평화의 상징이자 경제교류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종교계 및 민간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극심하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올 상반기 예정된 금강산 신계사 보수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민추본은 지난해 8·25남북공동합의문 발표 직후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남북 민간교류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후 조선불교도연맹(연맹장 강수진, 이하 조불련)과 함께 남북불교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신계사 훼손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본격적인 보수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박재산 민추본 사무국장은 "당초 올

상반기 신계사 보수공사 착수 및 3월 초 조불련과 연중 협력 사업을 의논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라며 "향후 정세를 지켜보며 사업계획을 수정·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남북정세에 따라 급작스런 중단을 반복하는 민간교류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사무국장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남북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마저 잠정 폐쇄를 결정하며 모든 민간교류마저 활로를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는 8·25합의 직후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을 통해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며 2억 원 분량 양과 씨앗 보내기, 황해북도 금강수공장과 금강강방공장 재가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신정수 평불협 상임이사는 "구체적인

금강산 신계사 보수 작업 등 "상반기 사업 사실상 불가"

정세 따른 민간교류중단 한계 불교계 '중단 철회' 요청 잇달아

대북지원사업을 구상하던 중 다시 상황이 악화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방침을 따지긴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의 대북지원 및 교류는 끊어지지 않겠다. 계속 정세에 따라 민간교류를 중단시킨다면 71년 분단의 역사가 700년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난세에 불교계 재가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불교계 대북 및 남북교류단체들이 입을 피해는 물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붕괴', '남측 입주기업인 피해 속출' 등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

지원, 이하 불시넷)는 2월 14일 성명문을 통해 "남북 평화와 정부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해 온 입주기업인들은 갑작스런 정부 결정에 설비는 물론, 완성품마저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중단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시넷은 대북재정조치로써 한미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배치로 이웃나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과 함께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남한)현실로, 경제침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드(THAAD)'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제로, 이를 한반도 일대에 배치할 경우 레이더가 중국 동쪽 지역을 탐색할 수 있어 중국 측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전주호, 이하 대불청)도 "스스로 발에 도끼를 찍는 행위와 다른없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자해적인 조치"라고 일갈했다. 이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가 북한이 아닌 남한 측에 더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 비판이다.

이어 대불청은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통일대박론'을 거론하며 "공단 가동중단 시일이 길어질수록 남측 기업들의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은 물론, 북한과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민족화합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시킴으로 만들어놓은 '통일 대박'을 외치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이자 '쪽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의평화불교연대(공동대표 김광수·박병기·이도흠·최연·형난옥)는 2월 18일 성명문을 통해 "남북은 모두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남한만으로 한성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북한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더 확대해도 시원찮을 상황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124개 기업을 거의 부도 상황에 몰아넣는 것은 물론, 북한에 유입되는 1억 달러를 차단기 위해 5억 달러 손해를 보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아름 기자**

조계사 청춘학당 개설

65세 이상 불자 대상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65세 이상 불자 신도를 대상으로 '청춘 학당'을 개설한다. 현대무용을 비롯해 요가 등 활기찬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계사 안심당에서 열리는 이번 청춘학당은 3월 9일부터 매주 수·목·금요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다.

수요일에는 현대무용 강사인 '롤루랄라 무용', 목요일 레크리에이션과 요가를 결합한 '레크요가', 금요일 '스님과 떠나는 마음여행'이 진행되며 수강료는 1개월에 5만 원이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신도들의 인문적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당'과 조계종 중무림 및 조계사 중무림 등을 위한 '선재학당'도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일반시민들과 조계사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당은 매주 금요일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붓다에게 길을 묻다-인생의 근본적 질문에 관한 불교적 답변들', 이남국 연천문화연구소 이사장의 '논어를 통해 본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 등이 진행된다. (02) 768-8580 **노덕현 기자**

선목혜자스님, 53도량 순례 첫 발 내딛어

2월 18일~20일 도안사서 발대식 겸 첫 순례법회

4년여 일정으로 진행... 월 1회씩 천도재도 봉행



선목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서 발대식을 겸한 첫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선목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53기도도량 순례기도로 4년여간의 일정에 첫발을 내딛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서 발대식을 겸한 첫 순례법회를 봉

행했다.

이번 53기도도량 순례는 전국 주요 기도도량을 삼보사찰, 적멸보궁, 미타, 미륵, 관음, 문수, 지장, 보현, 나한도량 등 아홉 개 성지로 구분해 53기도도량을 순정했다.

이는(화엄경 입법계품)서 선재동자가 구도순례의 길에 찾아가는 53선지식을 찾아 진리를 배우며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선목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서 회주 선목혜자 스님은 회원들에게 108염주를 만드는 염주를 보시하며 53기도도량 앨범을 함께 채운다. 이 앨범에는 기도도량에 가서 찍은 사진과 사찰 전경이 담긴 순금(純金) 호신볼카드(전면) 53선지식 그림과 광명진언(후면) 등이 담긴다.

또한 수행일기와 발원문을 써서 보관토록 해 53기도도량의 기도 추억을 고스란히 담도록 한다. 이외에도 별도로 기도 법요집도 만들었다. 기도 법요집에는 삼귀의, 천수경, 각 불보살 정근,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발원문, 반야심경, 각기도 발원문, 보현행원, 사후서원, 53기도사찰 이름, 53선지식 등을 담았다.

특히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매일 53기도도량을 찾아 일일기도하고 도안사서 '선망부모 일가친척 조상영가와 유주무주고흔 천도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파견법, 자비·공동선 관점서 바라보다

3대 종교, 2월 18일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토론회 개최

3대 종교가 정부가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안'을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월 18일 천주교서울교구청 신관 502호(명동성당)서 '3개종단 토론회-종교가 바라본 파견법'을 개최했다. 김혜진 불한당 노동절제연대 상임활동가 발제를 시작으로, 각 종단 대표 토론회자로 범상 스님, 정수용 신부, 최형묵 목사가 나섰다.

3개 종단 대표는 각각 '인식의 차이'(불교), '인간존엄성과 공동선'(가톨릭), '정의'(개신교)의 가치로 파견법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다.

범상 스님은 먼저 정부와 노동자들의 인식 차이를 거론하며 "고용자와 피고

용자들 간에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대화와 양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모두가 충족하는 충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불교의 지비로움은 어느 순간 적선이 아닌 약자의 아픈 입장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라며 "종교인들은 사회의 아픔이 생긴 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미리 연구·검토해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수용 신부는 파견법 개정안이 노동자들 우려하며 "인간은 결코 '도구'로 작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형묵 목사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종교간 연대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월 18일 천주교서울교구청에서 '3개종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석가를 품은 53건 - 이 시대의 또 다른 안목,

또 다른 화두집...

드디어 출판되다..

수행자라면 한 번은 참고해 볼만한 화두집



석가

53 건을 품은
- 권귀 화두집 -

© 도서출판 왕산

- 제11권 석가를 품다
- 제2권 평은 초대장
- 제3권 법(法)을 버리다
- 제4권 차 한 잔
- 제5권 해인 삼매
- 제6권 창조와 표절
- 제7권 아부선사 웃다
- 제8권 요지경
- 제9권 말 많은 석가?
- 제10권 히말라야영화
- 제11권 동시구족

- 제12권 법맥?
- 제13권 부처와 하룻밤을?
- 제14권 윈드서핑
- 제15권 발효식품
- 제16권 한 맛
- 제17권 뒤바뀐 안목
- 제18권 평온한 남자
- 제19권 참새집
- 제20권 병(病)든 부처
- 제21권 생화와 조화
- 제22권 직거래?

- 제23권 묘혜(妙慧)
- 제24권 법은 무의(無依)다
- 제25권 천도(遷度)란?
- 제26권 고구마 부처?
- 제27권 마음속 부처
- 제28권 개나리는 노랗다
- 제29권 범부와 선지식
- 제30권 깨달음의 신호등
- 제31권 다음생
- 제32권 종(鐘)
- 제33권 스승을 찾아서

- 제34권 대자유인의 길
- 제35권 집착을 놓다
- 제36권 종교와 현실
- 제37권 자식인연
- 제38권 형제 인연
- 제39권 도반인연
- 제40권 부부인연
- 제41권 대방광불 화엄경..
- 제42권 왕(대통령)
- 제43권 득각(觸覺)은?
- 제44권 <나>

- 제45권 대도(大道)란?
- 제46권 부처님 오신날
- 제47권 신통력(神通力)
- 제48권 보시(기부)
- 제49권 정견(正見)을 치다
- 제50권 업(욕심의 흐름)
- 제51권 평온을 만나다
- 제52권 화엄경_7행시
- 제53권 평은 축제

회향계

이 <석가를 품은 53건>의 출판으로 얻은 수익금은 <세계의 고등받는 어린이>를 위해 전액 기부합니다.

2016년 1월 11일 평은진귀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도서출판 왕산 문의 1899-9532



편저자
平濶 眞歸 (평은, 진귀)
화엄경강원 강주